

월서 스님의 주련 이야기 18

“삶과 죽음은 둘 아닌 하나”

[원문]

서래일축전삼세(西來一燭前三世)
남국천년천오중(南國千年闡五宗)
유상처중정정재(遊償處中淨淨債)
백운회수여수동(白雲回首與誰同)
- 화엄사 각황전

[번역]

서쪽에서 온 등불 하나 삼세에 전하니
남국 천년에 오종이 넓게 퍼지도다.
뒤라서 이 청정한 공로 더해서 값을 손가
누구와 더불어 흰 구름에 머리 돌리리.

[선행(禪解)]

지난 토요일 아침, 한국 사회는 충격에 휩싸였다. 전직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정치와 종교를 뛰어 넘어 모든 국민들의 가슴에 슬픔과 충격을 던져 주었다. 얼마 전 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맹세했던 도덕성을 무너뜨리던 대해 유감을 소회(所懷)한 적이 있다. 이는 그를 나무라는 것이 아닌 일종의 자기반성에 대한 참회를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들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노 전 대통령은 자기반성을 너무 깊게 한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버리고 말았다.

‘삶과 죽음은 둘이 아닌 하나’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절실하게 깨닫고 말이다. 참으로 안타깝다. 그가 이런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한 나라의 전직 대통령으로서, 살아서 지은 죄를 참회하고 더 많은 가치 있는 일을 할 것을 다짐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크게 남는다. 그러나 그는 ‘삶과 죽음은 둘이 아닌 하나’ 입을 깨닫고 곁집편인 몸을 출연히 벗고 말았다.

인간의 삶속에는 ‘진실과 가식’의 세계가 늘 존재하고 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가식인가를 구별하는 것은 보편적인 사람의 ‘눈과 마음’이다. 이것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노 전 대통령이 아무리 자신의 진실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보편적인 사람의 눈에는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죽음으로 인해 진실과 가식조차 구별할 기회를 잃고 말았다. 이미 그는 그의 잘못을 죽음을 통해 모든 이에게 스스로 용서를 빌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위대한 부처님의 말씀을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던지고 홀로 떠나고 말았다. 그러나 남아 있는 사람들의 슬픔은 어떻게 하라.

그렇다. ‘삶과 죽음은 둘이 아닌 하나’이다. 사

람이 만약 이러한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다면 이 세상에는 욕심이 사라지고 사랑과 자비가 넘쳐 날 것이 틀림없다.

오늘은 사설(私說)이 길었던 것 같다. 그럼 화엄사로 사찰 주변여행을 떠나 보자.

지리산 화엄사는 건축적으로 매우 특이한 사찰로서 주불전은 두 건물이다. 유명한 각황전(국보 67호)과 대웅전(보물 299호)이 하나의 마당을 감싸며 서로 직각 방향으로 서 있는 곳이다.

의상 대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지고 있는 각황전은 원래 장육전이라고 불려, 거대한 비로자나불을 모시고 있는 3층의 대전각이었다.

실내에는 돌로 벽을 두르고 그 위에 화엄경을 새겨서 돌벽 주변을 돌면서 화엄경을 읽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말하자면 화엄 신앙의 건물인 셈이다. 대개의 절은 대웅전을 중심으로 가람을 배치하

장육전 증건불사 대발원의 기도를 올린 지 백일모 회향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후 그 장육전의 화주가 될 사람이 바로 공양주 스님으로 간택되었다. 공양주 스님은 공양을 짓는 수행만 했을 뿐 화주에는 전혀 인연이 없어 걱정이 태산 같았다. 밤새껏 걱정하며 대웅전에 정좌(正坐)하여 부처님께 기도를 올렸다.

그 때 비몽사몽간에 문수보살이 나타나서 말하기를 “그대는 걱정 하지 말라. 내일 아침에 바로 화주를 위해 떠나라. 그리고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에게 시주를 권하라” 하시며 사라졌다고 한다. 공양주 스님은 용기를 얻어 대웅전 부처님께 절을 하며 “말은 바 화주 소임을 잘 완수하도록 가호를 내리소서” 하고 일주문을 나서서 걸기 시작했다.

한참을 가니 그의 앞에 남루한 옷을 걸친 거지 노파가 절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화주승은 노파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거지노파에게 어떻게 장육전을 지어달라고 하려 싶어하였다. 화주승은 하루 종일 노파에게 전후 사정을 이야기하고 시주하기를 간청했으나 노파는 아무런 대안이 없었다.

그러나 노파는 화주승의 정성에 감동되어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가난함을 한탄하다가 이윽고 화엄사를 향하여 함장하고 대 서원을 밝혔다.

노파는 “이 몸이 죽어 왕궁에 태어나서 큰 불사를 이룩하오리니 문수보살이시여! 가호를 내리소서.” 이렇게 원력을 아뢰며 수십 번 절한 뒤 소(沼)에 몸을 던졌다. 그 후 오륙년이 흘렀다.

화창한 봄날 화주승은 창덕궁 앞에서 서성거리다가 유모와 함께 궁 밖을 나와 놀던 어린 공주와 마주치게 됐다.

어린 공주는 화주승을 보자 반가워하며 달려와서 우리 스님이라면서 누더기 자락에 매달렸다. 그런데 이 공주는 태어나서부터 한쪽 손을 친 채로 퍼지 않았다. 화주승이 꼭 쥐고 있던 그 손을 만지니 신기하게도 공주의 손이 퍼지는데 손바닥에 장육전이라는 석자가 적혀 있었다.

이 소식을 들은 숙종대왕은 화주승을 내전으로 불러 자초지종을 모두 듣고 감격하여 “오! 장하도다. 노파의 깨끗한 원력으로 오늘의 공주로 환생했구나. 그 원력을 이루어 줘야 말고” 하며 장육전 건립의 대 서원을 발하였다.

이렇게 하여 나라에서는 공주를 위해 장육전을 중창할 비용을 하사하였고 장육전이 완성되자 사액(賜額)을 내려 각황전(覺皇殿)이라고 했다.

불도를 깨달은 왕이란 뜻과 임금님을 일깨워 중건하였다는 뜻으로 각황전이라고 부르게 됐다고 전해지고 있다.

■ 조계종 원로의원

욕망과 집착에 물들어 사물의 본래 모습 못 보

치우치지 않고 진리의 핵심 보는 안목 갖춰야

지만 이 절은 각황전이 중심을 이루어 비로자나불(毘盧遮那佛)을 주불(住佛)로 공양한다. 그럼 각황전 주련의 내용 속으로 들어가 보자

‘서래일축전삼세 남국천년천오중: 서쪽에서 온 등불하나가 삼세에 전하니 남국 천년에 오종이 넓게 퍼지도다.’

달마가 불교를 서쪽에서 동쪽으로 전파한 일은 하나의 등불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작은 일은 전세(前世), 현재(現世)를 거쳐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네팔 동남아까지 불교를 전파하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다. 또한 이 불교는 미래에도 전 세계에 전파될 것이 분명하다. 말하자면 그 작은 등불하나가 불교 대승의 다섯 종파인 천태종, 화엄종, 법상종, 삼론종, 율종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다.

‘유상처중정정재 백운회수여수동: 뒤라서 이 청정한 공로 더해서 값을 손가 누구와 더불어 흰 구름에 머리 돌리리.’

달마가 불교를 동쪽으로 전한 업적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청정(淸淨)하다. 이 위대한 업적을 이어갈 사람은 바로 중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가 아니겠는가. 이는 그저 흰 구름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 자연스러운 이치가 아니겠는가? 참으로 지당하고 지당하신 부처님의 말씀이다.

화엄사의 각황전에는 특별한 전설 하나가 내려오고 있다. 그것은 숙종대왕의 공주가 각황전의 시주로 환생했다는 이야기이다. 어느 날 계파 선사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달마혈맥론 18

구하는 마음 없이 닦아라

[원문]

若是佛不習外道法 佛是無業人 無因果 但有少法可得 盡是誘佛 憑何得成 但有住着一心一能一解一見 佛都不許.

만약 부처라면 외도의 법을 익히지 않느니라. 부처는 업을 갖지 않는 사람이며 인과가 없는 사람이니 조그마한 것이라도 얻을 것이 있다하면 모두 부처를 비방하는 것이니 어디에 의지하여 부처가 되겠느냐. 한 마음이나 한 작용이나 한 생각이나 한 소견이라도 집착을 하면 부처가 될 수 없느니라.

[해설]

달마 대사께서는 “조그마한 것이라도 얻을 것이 있다면 중생심이 부리는 유위법이며 인과의 법이며 과보를 받는 법이며 윤회를 하는 법이라 생사를 면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성품(性品) 자리는 모양이 없는 자리니까 얻을 것이 없습니다. 모양이 없으니 인과(因果)가 없는 자리이고 생사(生死)도 없는 자리이고 윤회도 끊어진 자리입니다. 어떤 이름도 붙일 수 없고 형상이 끊어진 자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성품 자리를 두고 무엇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사도(邪道)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장애라는 것은 과거 생애 지어놓은 업에 의한 것입니다. 그 업은 누가 지어놓은 겁니까? 내가 지어놓은 업이기 때문에 내가 녹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업을 녹이기 위해 일념으로 정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일이 오겠지요. 불사(佛事)가 많이 된 사찰을 보면 스님들이 정진을 몇 천일씩 해서 불사를 해놓은 거예요. 그냥 되는 법은 없습니다.

업불 수업을 맑은 기운이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지어놓은 업을 맑히고 업을 소멸시키는 큰 힘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불의 좋은 기운이 좋은 인연을 불러들여 뜻을 이루어지게 합니다. 달마 스님께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면 안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얻을 수가 없는 자리를 놓고 얻으려는 마음이 갖고 있으면 이것은 욕심이 들어가 있는 것이기에 때문에 이를 수 없다고 달마 스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불생불멸(不生不滅)이고 인과도 없고 윤회도 없는 우주의 근본 부처님 자리에 눈을 떠야 집착이 끊어집니다. 반야(般若)에서 보면 분명 물질이 아닌데 그것이 내 것인양 집착하는 가운데 괴로움이 오는 겁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알면 집착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사실을 알면 괴로움에서 벗어나지만, 사실을 모르면 괴로움과 끊임없는 윤회

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순수한 우주의 근본 실상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얻을 수 없는 그 자리에 마음을 두고 그저 일념으로 정진해 가면 좋은 기운을 통해서 좋은 인연이 오는 것입니다.

달마 대사는 또 “부처가 되려면 마땅히 자기에 게 본래 갖추어져 있는 자기의 본성을 보아야 하는데, 본성을 보지 못하면 인과 등의 말이 모두 외도의 법이다”고 했습니다. 수행하려면 본래 갖추고 있는 본성(本性)을 보아야 하는데, 본성을 보지 못하면 모두 인과에 걸린다는 말입니다. 이는 본성 자리에 마음을 두면 인과에 걸리지 않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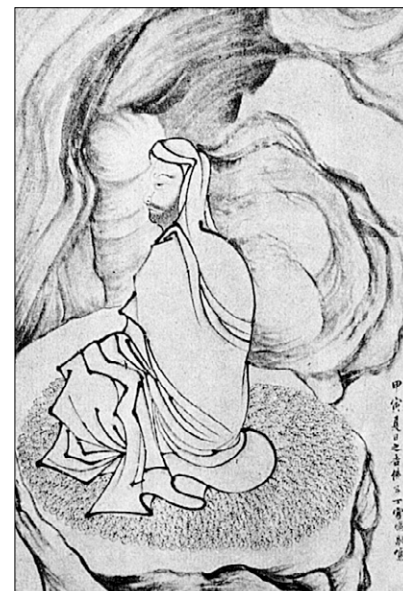
우리가 윤회하는 것을 보지 못해서 그렇지 돌아보면 쥐나 고양이, 늑대 등 짐승으로 태어나는 원인은 하나 같이 욕심을 부린 과보에 있습니다. 반야에서 보면 내 것이 없잖아요. 얻을 것이 없는데 내 것으로 집착하면 욕심이 다시 어리석은 짐승으로 태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성격이 사납고 포악한 사람들은 죽어서 사나운 짐승으로 태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짐승으로 태어나도 초목을 먹고 사는 짐승으로 태어나면 털하얗지만 살생을 하는 짐승으로 태어나면 문제가 많아요. 마음을 착하고 선하게 써야 됩니다. 본성을 보지 못하고 행하면 모두 외도의 법이고 인과에 걸리게 됩니다. 외도(外道)와 정도에 대해서는 잘 알아야 됩니다. 우주의 근본 실상자리에 마음을 두면 정도이고 실상(實相)을 떠난 자리는 외도(外道)입니다.

그러나 부처라면 외도의 법을 익히지 않습니다. 달마 대사는 “부처는 업을 갖지 않는 사람이며 인과가 없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조그마한 것이라도 얻을 것이 있다 하면 모두 부처를 비방하는 것이니 어디에 의지하여 부처가 되겠느냐. 한 마음이나 한 작용이나 한 생각이나 한 소견이라도 집착을 하면 부처가 될 수 없다”고 경계하신 것입니다.

부처가 되는 길에 대해 큰스님들께서는 “세수하다 코 만지는 일보다도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르면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지금 말씀 드린 우주의 실상, 반야 자리는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말도 붙일 수가 없어요. 모양이 없다고 없는 것이 아니고 있기는 있는데 볼 수는 없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부처의 세계입니다. 무언가를 얻으려는 마음으로 불교를 믿는다면 불교를 비방하는 겁니다. 불교를 모르고 폄하하는 것입니다.

■ 정주 혜은사 주지



‘면벽 달마도’ (정운봉 작).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부족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혜전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 책자 안내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2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3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4 데이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5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6 조상대대 진족, 연족 인제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7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8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9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례)
10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11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12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혜전법사

- 책자 안내
1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2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3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4 팔계의 상경에 대한 설명
5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6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7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8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9 팔계만다라 역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혜전법사

- 1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2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3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화해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4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5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6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7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현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자살영가천도재(무료)

우리 곁을 스스로 떠난 노무현대통령님, 연예인들 및 기업인 그 외 많은 분들, OECD중 일등자살공화국이란 오명은 누구의 책임이라고 탓하기 전에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업이 많아 다음 생애도 과보는 계속 이어 집니다. 불보살님의 가피와 여법한 스님의 법력에 의한 천도와 유족님들이 지극정성으로 기도할 때 비로소 자살한 영가님은 모든 집착을 버리고 아미타불의 영접을 받아 극락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자살위기가라도 구하겠다는 목적으로 창건한 사찰 ‘묵언마을’에서는 한 많고 불쌍한 자살영가 천도재를 다음과 같이 무료 봉행하오니 자살영가와 인연이 있는 분이나, 후원을 원하시는 분은 종교에 관계 없이 아무런 부담 갖지 말고 많은 동참 서원합니다.

일시: 불기 2553년(2009년) 6월 27일 10시 30분 ~ 14시까지
장소: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칠장리 403-1
주최: 한국불교태고종 묵언마을
집전: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 문화부장 상진스님
신청: 031)672-3108. 카페(다음,네이버) “묵언마을”